

# 커시안의료기계, 자동화 생산으로 힘찬 도약 꿈꾼다

스마트 승격으로 의료기계 업종의 고품질 발전 추동 | 연간 생산액 6 억원 세금액 4,500 만원 예상

“ 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의 자동화 생산은 산업원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커시안의료기계의 새로운 스타트,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고품에 복을 마련해 주며 사회에 기여하면서 중국 의료기계산업의 발전에 적극 힘을 이바지할 것 ”



3월 10일,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이 설립 3주년을 맞아 자동화 생산선 가동식을 가졌다. 자동화 생산선의 정식 가동은 커시안 의료기계산업이 '스마트 제조' 신시대에 들어섰으며 더욱 고효율적이고도 정밀화한 생산모식으로 더욱 힘찬 도약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연길시당위 서기 왕길보와 커시안 그룹 박길 리사장이 짐을 올려 자동화 생산선의 정식 가동을 알렸다.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은 커시안그룹이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손잡고 중점적으로 창출한 것인데 현대과학기술을 수단으로 의료기계 제품 연구개발과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의료기계 부속품을 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특색산업원이다.

총투자자 4 억원 (그중 연길커시안 의료기계유한회사 설비 투입 1 억원) 이고 부지면적이 2 만 2,000 평방미터, 총건축면적이 3 만 2,400 평방미터인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커시안 의료기계산업원은 지난 2022년 9월에 착공해 올해 3월부터 운영에 투입되었는데 의료기계 업종 혁신 발전의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현재 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에서는 '커시안' 전위온열치료기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업종에서 앞장선 자동화 설비들을 대폭 도입하여 자동화정착생산선, 자동화재단생산선, 신형재봉생산선 등 3개 생산라인을 업그레이드했다. 자동화 생산으로 생산공예의 표준을 크게 높임과 동시에 인원조작 의뢰성을 대폭 낮추었고 제품질의 안정성을 대폭 제고시켰다.

료해에 따르면 산업원이 전면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연간 생산액 6 억원과 세금액 4,500 만원을 올릴 수 있어 생산액과 세금액이 매년 30% 이상의 증가폭을 실현하게 되며 연간 생산액이 최고 20 억원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동시에 600 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해주어 시민들의 취업에도 적극적인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길시정부 오현철 시장은 가동식 축하에서 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의 자동화 생산선 정식 가동은 연길시 생명건강산업이 융성발전하는 좋은 실례라고 하면서 이는 연길시가 대폭적으로 신질생산력을 양성 발전시키고 산업 전환 승급을 추진하는 중요한 일환이라고 강조, 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

이 날따라 발전 장대해져가는 데 축하를 표시했다. 그는 연길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은 설립되어서부터 줄곧 연길시와 깊이있게 융합되었다면서 다년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은 전국에 600 개나 되는 체험점을 둔, 국내 유명 공급상으로 되었으며 연길시의 지역경제 발전에도 거대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오현철 시장은 이번 자동화 신설비의 가동은 기업의 자체 시장 기회를 선점하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기술혁신일 뿐만 아니라 연길시 생명건강산업이 다그쳐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해져가는 강대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오현철 시장은 커시안산업원이 계속해서 개혁 정신을 견지하고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기술난관을 극복하며 생산모식을 부단히 최적화해 제품 생산에서 고품질 제조의 화려한 변화를 다그쳐 이룩할 것과 연길시정부에서 계속해서 기업에 랑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및 원원을 실현할 것을 바랐다.

커시안그룹 박길 리사장은 커시안

산업원은 계속해서 혁신 능력을 높이고 '중국제조' 진척을 다그치며 생산라인의 자동화 관리통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생산능력과 제품질 관리 방식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섬과 더불어 자동화 공장의 새로운 기치를 창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길 리사장은 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이 자동화 생산에 들어선 것은 산업원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커시안의료기계의 새로운 스타트라고 말하면서 커시안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고품에 복을 마련해 주며 사회에 기여하면서 중국 의료기계산업의 발전에 적극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동식이 끝난 후 행사 참가자들은 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 자동화 생산작업장을 참관했다. 커시안그룹은 향후 과학기술혁신으로 연구개발, 생산, 저장, 판매, 판매 후 봉사를 일체화한 성숙된 의료기계 산업 고리를 창출하고 의료기계산업의 쾌속 발전을 이끌면서 업종을 대표하는 연구개발 전환 중심과 혁신창업 플랫폼으로 큰 도약과 성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안상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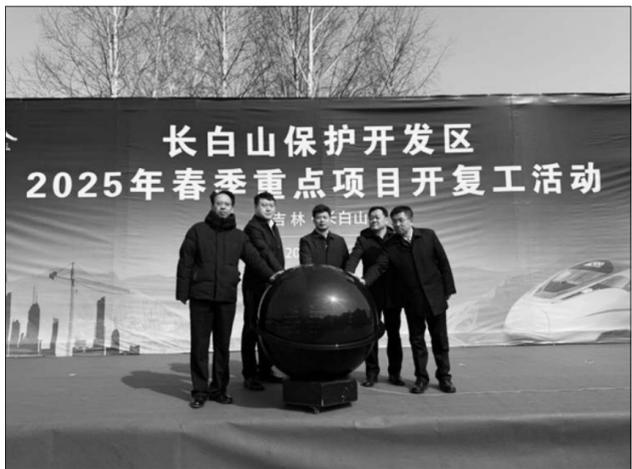


## 장백산보호개발구 봄철 중점대상 공사 재개

3월 10일, 2025년 장백산보호개발구 봄철 중점대상 공사 재개식이 장백산 은두리레저휴가상무관광사회구역에서 펼쳐졌다. 성정부 지도자 김옥휘, 성정부 부비서장 고장파, 성생태환경청 청장 왕유리, 성당위 선전부 부부장이며 성문화관광청 당조 서기인 천홍강, 장백산 당사업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고비가 행사에 참석했다. 장백산 당사업위원회 위원이며 관리위원회 부주임인 장홍파가 행사를 사회했다.

행사에서 고비 주임은 2025년 전 구역 대상계획 배치와 봄철 중점대상 집중 개업 및 조업 재개 상황을 회보했다.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3 개가 증가한 5,000 만원 이상 중점대상 28 개를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 총투자자는 97 억 3,000 만원이고 연간 투자는 17 억 3,000 만원을 완성해 연간 고정자

산투자 증가 속도가 10%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 그중 산업류 항목이 12



재로 43%를 차지하고 1 억원 이상 중점대상이 20 개로 71.4%를 차지하는 데 목전 장백산 은두리레저휴가상무관광사회구역, 장백산 룽각촌 (麓角村), 장백산서원국제문화교류센터, 만남·장백산빛예술체험관과 G331 1 급, 2 급 도로 개축 증축 공사 (장백산 구간) 등 6 개 대상이 착공 건설을 재개, 대상 총투자자는 29 억 7,000 만원이고 년도계획에 완수된 투자는 12 억 5,000 만원이다. 1 분기에는 전 구 고정자산 투자 2,000 만원을 완수하여 동기 대비 28%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가동구를 작동하여 2025년 장백산보호개발구 봄철 중점대상 공사 재개를 정식 알렸다. 공사의 집중 재개는 연간 대상건설 투자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전 구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금일길림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 창업혁신빌딩 중기 실험실 대상 시험운영

일전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창업혁신빌딩 중기 실험실 대상인 세포연구실험실에 설치된 196 도의 다양한 온도의 저온냉장고와 가지런히 놓여져 세포와 관련 제품의 막강한 저장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밀폐된 실험실에서는 과학연구인들이 격리복 차림으로 여러가지 기구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었다.

“이 대상은 2024년 12월에 건설을 마치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는데 인류 세포 및 각종 생물표본의 저장, 세포 배양과 의학 전환, 유전자 검출, 세포파생물 (미용 로화 방지 등) 생산 등 4 가지 류형에 주력하고 있다.” 대상을 담당할 길림심초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부총경리 주향경의 소개에 따르면 길림심초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는 2023년 12월 상해심초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투자, 설립했으며 주로 생물표본저장고의 첨단 발전, 립상연구 수요 및 업종 상하류 기업에 혁신 수요에 모를 박고 연길시에 생물표본저장고중상자격양성중심, 유전자검출및암정밀검사중심, 생물경제응용전환중심을 계획, 건설했다.

대상의 건축면적은 2,400 평방미터인데 그중 1,600 평방미터는 상무집무구역 전시청, 휴식구역, 다기능실, 종합사무실, 서명실로 사용되

고 800 평방미터는 생물저장관리전시구역, 실험실, 세포추출실, 설비실, 견본추출실 및 기타 장식 부대공사이다. 연변대학 전환중심 연구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상해심초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의 전 과정 기술 통제 및 전 과정 품질 감독을 거쳐 이 대상은 줄기세포, NK 면역세포와 엑소솜 (外泌体) 을 제조해냈으며 현재 세포 제제 및 의학 전환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년간 생물제조기술의 신속한 발전은 줄기세포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다.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새로운 경주로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세포산업이 '일차선'에 들어서도록 다그쳐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기세를 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향경은 길림심초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의 세포 저장 및 기술 봉사는 주로 동북 3 성과 동북아지역의 중고급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 학자, 생물세포 연구인 (작업실) 에 과학 연구 보조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 과학연구소, 의료단위와의 산학연 협력 템포를 다그치고 있으며 5년 안에 연길시를 동북아지역의 신약 연구개발, 립상응용, 줄기세포 관련 산업과 최종 판매를 아우르는 세포산업기지로 건설할 계획이다.

/연길시당위 선전부

## 돈화 식품가공기업 대상건설 전력 추진

돈화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식품가공기업들이 전력을 다해 대상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돈화경제개발구 장백산록색식품산업단지에 위치한 상하이생정보 기술 (그룹) 유한회사의 선식옥수수 가공 대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 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선식옥수수 가공 대상은 지난해에 단지에 입주했는데 주로 선식옥수수, 선식옥수수알갱이 전 자동 생산라인을 건설하며 올해 4월말, 5월초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5,000 만개 선식옥수수를 가공해 생산액이 1 억원에 달하고 500 만원의 세수를 실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백산록색식품산업단지는 총 6 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중 4 호, 5 호 공장은 선식옥수수 가공 대상으로서 주로 옥수수주스 원액과 옥수수알갱이 2 가지 품종의 제품을 생산한다.

장백산록색식품산업단지의 3 호, 6 호 공장은 경준양네트웍과학기술유한회사가 5,000 만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스마트 클라우드 창고 및 공명당 플랫폼 대상으로 작업장의 기반시설 건설을 이미 완료했다.

돈화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년

간 생산량 20 만톤 비유전자 전환공 전체 산업사슬 가공 대상은 길림민덕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가 7 억 2,000 만원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있는데 각 작업장 설비 설치거의 완료했으며 현재 실내장식, 강철 구조물 용접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책임자 손명은 “3 개월 정도 지나면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대상은 2 기로 나누어 건설하는데 1 기는 2 억 2,000 만원을 투입해 공 고급 저온 단백질 지메미 생산라인, 고급 달지 및 비린내 제거 공 단백질분말 생산라인, 공기를 정제 생산라인, 반달지 고급 공분말 생산라인을 각기 하나씩 건설할 계획이다. 2 기는 5 억원을 투입해 고급 기능성 농축 공 단백질 생산라인 두갈래, 고급 공 섬유 단백질 생산라인 한갈래를 건설할 계획이다.

손명은 “6월에 공가루 생산라인과 공기를 생산라인이 모두 가동되면 저온 공가루, 고온 공가루, 공기를 등 4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고 소개하면서 2025년에 3 억 6,000 만원의 생산액을 완수하고 600 만원의 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연변조간

## 중농 식용유 대상 새로운 로정 시작

지난 2월 25일, 중농산업 건강 식용 식물성기름 및 량질쌀 가공, 왕청량식기름산업단지 곡물창고 물류 대상이 조업 개시후 중요한 고리인 기계 점검수리 작업을 전면 시작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10 억 6,000 만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중농산업 건강 식용 식물성기름 및 량질쌀 가공 대상, 왕청량식기름산업단지 곡물창고 물류 대상은 연간 6 만톤 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제품은 각 품종의 대량 유지 및 각 품종의 기능성 유지를 아우르며 년간 판매수입 25 억원을 실현하고 2 억원의 세금을 창출하며 200 개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 그중 중농산업 건강 식용 식물성기름 및 량질쌀 가공 대상의 총투자액은 8 억 9,000 만원, 부지면적은 18 만 6,000 평방미터, 총건축면적은 277 만평방미터로 주로 작업장, 창고, 종합사무청

사 및 도로 경화, 록화 등 관련 부속시설을 건설하고, 후도 특종 기름 등 네개의 전자동 분류포장 생산라인을 건설한다. 왕청량식기름산업단지 곡물창고 물류 대상 총 투자액은 1 억 7,000 만원, 부지면적은 11 만 5,400 평방미터, 총건축면적은 4 만 5,200 평방미터로 주로 곡식창고 15 동을 건설하며 량식 보관, 검사, 운송 등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이 회사의 총경리 백효량은 “이번 점검 작업은 기업 생산라인의 핵심 설비를 포함하며 반달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소개했다. 지난해 5월에 정식으로 생산을 시작한 이래 중농산업은 년간 루게로 각종 식용유 2,000 톤 이상을 가공했고 여러 규격의 소형 포장 식용유 5 만여 상자 생산해 1,7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연변뉴스넷